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4)

방독천하(方毒天下)

바야흐로 천하에 해독을 끼쳤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서는 대선도 끝나서 정권교체기에 들어갔는데,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뉴스의 중심에 와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국제 범죄행위이다.

사실 고르비 시절에 구소련이 붕괴될 시기에만 하여도 이제는 옛 소련의 독재제재가 무너지고 러시아에도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푸틴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몇 번 하더니 법률상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자 자기 수하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총리를 할 때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 그 후 다시 대통령에 오르더니 그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인사를 도살하여 하였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자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러시아 자국 내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인심을 알았던지 계속하여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밖으로 돌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를 기화로 러시아 국민의 눈을 밖으로 돌리고 또 이를 이유로 국내에서 통제력을 강화하여 저지른 범죄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보인다.

이렇게 독재를 서슴지 않는 푸틴도 러시아에서 선거, 즉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하여 뽑힌 대통령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독재자에 불과하다. 그래도 겉모습만은 민주주의를 사용하였으나 사기(詐欺)치고는 국민을 통째로 속여 먹는 사기인 셈이다.

하기는 3대째 왕조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북한에서도 국호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고 선거라고 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그래도 민주주의가 역사의 대세(大勢)이어서 이 단어를 뺄 수는 없는가 보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근세에 와서 생긴 말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였던 예전에도 권력자는 민의(民意)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예전 문헌의 곳곳에서 보이는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맹자(孟子)는 제왕(帝王)답지 않은 제왕을 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까지 말한 일이 있다. 하루는 맹자의 제자가 맹자에게 물었다. 하(夏)왕조의 걸(桀)임금 시

절에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탕(湯)이 제왕인 걸을 친 것은 반역한 것이 아니냐? 또는(殷)왕조의 주(紂)임금 시절에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주(周) 무왕이 주(紂)임금을 친 것은 반역이 아니냐고 물은 일이 있다.

당시에는 제왕이 곧 나라였고 그 외의 사람은 그의 신하이거나 백성이었던 시절, 신민(臣民)은 당연히 왕에게 충성을 하여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걸의 치하(治下)에 있던 탕(湯)이, 주(紂)의 치하에 있던 무왕(武王)이 그들의 제왕을 쳤으니 이는 신하로써 제왕을 친 것이고 또 이는 하극상(下剋上)이고 불충(不忠)을 넘은 반역(叛逆)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다.

이런 질문을 받은 맹자는 단호하게 대단하였다. '걸주(桀紂)는 형식상 제왕의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이미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제왕이 아니고, 한낱 필부(匹夫)였고, 그러니 탕과 무왕이 걸주(桀紂)를 친 것은 제왕을 친 것이 아니라 필부를 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맹자의 혁명론(革命論)이지만, 이러한 논리가 한 번 나왔다고 하여 그 논리대로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전히 제왕이 한 번 되면 독재정치를 하였다. 그들도 역시 백성들을 생각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하는 행동은 독재였다. 그렇다면 이 독재자들의 말로는 어찌 되었을까? 잘 알려진 진(秦)은 시황제는 6국을 통일하여 통일천하를 이루었지만 엄청난 독재자였다. 그러나 그가 죽고 얼마 안되어 큰 아들은 자살하였고, 황제자리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호해(胡亥)는 자기 형제들을 남김없이 죽이더니 한낱 평민인 유방(劉邦) 등의 봉기로 멸망하였다.

한(漢)의 무제는 문경(文景) 시절의 좋은 시대를 이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되어 사방으로 원정(遠征)이라는 이름으로 흉노를 치고 영역을 넓히려 했다. 수많은 백성들을 전장에서 죽게 하고 성과를 이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 간 전쟁 경비 때문에 한(漢) 왕조는 급격히 사양길에 들어섰으니 역사가들은 한(漢)을 망하게 한 사람은 무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라! 후한대에 들어오면 법제상으로는 황제의 자리가 막강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올라 갈 수 없었던 환관이나 외척들이 황제의 권한을 마음대로 대신 휘두르려고 되도록 어린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세웠다. 이들은 황제 자리 차지 하지 않고 독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 중원

에서 통일 왕조는 끝나고, 조조, 손권, 유비로 일컬어지는 삼국시대가 되었고 그 후로 위진남북조, 오호십육국으로 이어지는 근 400년간의 분열의 시대를 열었다. 결국 독재자란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백성이나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소탐대실(小貪大失)하다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독자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백성의 목소리를 안 들은 데 있다. 사실 왕조시대의 백성은 개인으로서는 무지(無知)하고 힘이 없는 미물(微物)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백성은 배를 떠올 수도 있고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 물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백성들은 그 독재를 뒤엎었던 것이다. 이렇게 왕조시대에서 조차도 백성들의 힘은 엄청나게 커던 것이다.

이러한 독재의 후과는 비참하다는 것은 역사에서 누누이 나타났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공감이 형성되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탄생했을 것이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독재자는 교묘하게 선거라는 허울 좋은 껌데기를 쓰고 나타나서 백성들을 속이려 한 일이 근세에도 있었다.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중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 가지 않았고, 결국 독재자의 말로를 비참하게 끝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코앞에서 펼쳐졌는데, 푸틴은 이 역사에 나타난 독재자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물론이지만 러시아 자체도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조차도 그 폐해는 엄청 크다. 그리고도 푸틴에게 그 후과(後果)가 평탄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쌓아온 온 역사가 잘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제가 죽었을 때 역사가 사마광은 한마디로 그가 '바야흐로 천하에 해독을 입혔다'고 하였다. 푸틴이 정말로 천하에 엄청난 해독을 입하고 있으니 그가 죽는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두고두고 그는 자신도 망하고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머! 우리 선생님 양반이시네요?”

칠판에 내 성명 석 자를 또박또박 쓰고 있을 때다. 교실에 앉아있던 한 어머니가 무심결에 큰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분필을 놓고 돌아서는 내 얼굴이 멋쩍어서 순간 화끈거린다.

3월 중순에 각 교실에서 첫 학부모총회가 열렸다. 프로젝션 TV화면을 통해 교무실에서 방영되는 식순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내게 양반이란 단정했던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에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시선에 우쭐해졌는지 몇 마디 덧붙인다.

“선생님 고향이 안동이세요? 안동 권씨라면 진짜 양반이네요.” 더욱 쳐신이 난감해진 나는 학부모들의 시선을 마주 대하며 빙그레 웃었다.

상경 후 삼십여 년이 지났어도 원뿌리에 남은 고향 사투리 어투를 디털어내지 못하고 들켰나 보다. 이럴 경우 답변을 잘하면 본전이요, 자칫하면 학부모들에게 담임의 성품과 신뢰가 훼손될 게 뻔하다. 우분협답 흥분질문을 찾느라 잠시 고심했다. 문득 쳐신 적에 친정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 소견을 함께 버무려서 조신하게 대답했다. “네, 제 고향이 안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태고 난 양반이야 어디 있겠어요. 바쁜 생각과 언행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양반이라 할 수 있겠지요.” 난처한 입장에서 즉답한 현세現實의 양반론이 학부모들의 시선이 봄 햇살처럼 밝고 따스하게 다가왔다.

이 체험담은 서울 강북의 어느 아파트촌에 위치한 S초등학교에 근무할 때의 얘기다. 그 한 해도 나는 하는 수 없이 답답한 양반탈을 쓰고 양반 교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솔선수범, 언행일치, 청렴결백, 애국애족, 예의법률, 인권존중… 등등 내가 급조急造한 현세의 양반 척도에 맞게 한 해를 사느라 다소 애를 먹었다. 사실 내 성장기의 안동에서는 종가나 집성촌을 중심으로 한 각 문중門中의 혈족들이 다들 자신들이 최고 양반이라는 긍지로 살아온 듯하다. 오천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각 가문이 크게 번성했던 시대나 시절을 스스로 조명하면서… 그러기에 지금도 안동 현지에서는 상호相互 양반이라 지칭해 주는 경우는 드문 듯하다.

그해 학년 초의 첫 만남에서, 양반 타령으로 화기애애해진 우리반 학부모들과 담임 교사가 구축해 놓은 공감과 신뢰의 관계망이 제 역할을 특별히 해내는 사건이 있었다. 어느 한 교사의 부주의한 행위가 그 반 학부모들의 불신을 사면서 촉발된 불씨가 봄에서 초기가까지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저해하는 큰불로 번져 나가게 된 사건, 그 교사 외에도 몇몇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더해져 사건을 확산시켰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 속사정을 몰라서 양측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학교 경영 측면에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던 상급 책임자들은 거센 민원의 파고들고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학부모 대표들이 지목한 몇몇 담임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해 달라고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매일 출근을 하다 보면 교문에서 다수의 학부모들이 기자를 대동하고 들어서서 플래카드를 흔들며 요구 조건을 외치고 있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계 법령에 명백히 저촉된 경우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문제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지루한 논쟁은 전교생의 학교생활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지경에 이르니 학부모들 간에도 양비론兩非論이 일고 학교 측과 타협할 명분을 찾고자 했다.

평소에 어머니들과 소통이 잘 되고 신망이 두터웠던 중견 여교사 몇몇이 자진해서 중재에 나섰다. 그 당시 학년부장을 맡고 있던 나도 적극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이해와 양

진짜 양반

류정(榴亭) 권종숙(權終淑, 별장공파, 37세)



보를 요청했다. 다행히도 우리 반의 현석이 어머니가 학반, 학년의 학부모 대표를 겸하고 있어서 사태 해결의 단초端初를 찾을 수 있었다. 점잖으신 현석이 어머니는 뒤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 주시고, 어머니는 학년별 대표 학부모들과 물밀 타협을 시도했다. 우리 학년의 학부모들로부터 단체 행동에 불참하게 되니 다른 학년에서도 서둘러 탄다 불길을 끄고자 노력했다. 처음 이 사건의 불씨를 지핀 교사 한 사람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자진 휴직으로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다.

그 민원사건의 폐해로 인하여 가을에 접어들어서야 학교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었다. 학교 뒷산에서 불타오르는 오색 단풍이 갈바람에 낙화되어 이리저리 휘날리던 어느 토요일, 삼위일체(교사, 학생, 학부모) 동반 산행대회가 개최되었다. 봄시도 화창하던 그날, 학교 운동장에서 손잡고 출발하여 힘든 발걸음을 치른 마음 서로 달래며 산 정상에 올랐다. 너럭 바위 등판에 여기저기 흘러져 앉아 김밥과 간식을 서로 나눠 먹던 그 날의 정경이 지금껏 내 마음에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다.

행사 담당 교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호응하여 깔깔거리다 “야호! 야호!” 와치던 어린이들, 삼위일체들의 합일된 사랑이 산바람의 구음에 실려 산정山頂의 푸른 소나무 가지 끝에 주렁주렁 매달린다. 하산하면서 어느 어버지가 선창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어른들의 초등학교 시절, 즐거워 부르던 동요의 합창 소리가 산골짜기에 퍼져나가 허리를 낸다. 불암산 품속을 휘휘 돌던 청정바람을 흡뻑 들이마시며 교정교장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힘차고 가볍기만 하다.

‘주르륵 풍’ 앞에서 가미 미끄러져 영동방아를 찢은 현석이 가 살집 좋은 영동이를 툭툭 털며 자기 어머니와 나를 돌아보며 씩 웃는다.

“아이쿠, 어찌다가… .현석아, 괜찮나?”

“네, 괜찮아요. 선생님!”

갈바람처럼 시원스런 성격의 현석이가 오늘따라 더욱 믿음직해 보인다. 학교 공동체의 불협화음을 합창으로 어우르는데 기꺼이 앞장서 준 부모님의 품성을 아들 현석이가 고스란히 내려받았나 보다.

교문에 다다르니 ‘삼위일체 동반 산행대회 플래카드’가 우뚝 서서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맞아준다. 내 교직 생활의 마지막 근무처!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안동 권씨를 ‘진짜 양반’이라며 나를 끔찍이 아껴 주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류정 권종숙 시인은 안동교대를 졸업하고 37년간 교사로 봉직하다 37년퇴직했다.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화가이자 소리꾼이기도 하다.

〈2022年 3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02. 23.~03. 30.

총 납부자 157명

총 8,040,000원

*권오필	30,000	권도현(청원 합성동)	30,000	권성근(군산)	30,000	권영오(대구)	30,000	권오만(서울성북)	30,000	권오현(서울강남)	30,000	권전택(경산)	30,000	권충현(대구)	30,000	권현구(밀양)	30,000
권경일(대구)	30,000	권동기(안동)	30,000	권성덕(영덕)	30,000	권영욱(울산)	30,000	권오문(태백)	30,000	권오현(음성)	30,000	권점철(정읍)	30,000	권태연(제천)	30,000	권효택(양주)	30,000
권경호(영양)	30,000	권동일(안동)	30,000	권송환(울산)	30,000	권영운(경기김포)	30,000	권오상(김해)	30,000	권옥술(서울강남)	30,000	권정걸(안양)	30,000	권태인(대구)	30,000	권후중(제천)	30,000
권광대(의성)	30,000	권두채(전주)	30,000	권숙장(서울광진)	30,000	권영운(수원)	30,000	권오선(서울노원)	30,000	권용근(서울성북)	30,000	권정수(서울서					